

# 무안지역 당원 70명 당 대표실 점거농성

### ■ 민주당 김홍업씨 전략공천 파문 확산



민주당 무안·신안 지구당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김홍업씨의 전략공천을 반대하는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김홍업씨 전략공천 파문이 일파파로 확산되고 있다. 무안지역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대표실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가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데 이어,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잇따라 공천 철회를 촉구했다.

지역민들은 특히 민주당 관계자들이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혈연 관계' '미국에선 10대 세습도 한다' 등 억지 논리로 김씨에 대한 전략공천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어 범여권의 김홍업씨 연합공천 및 연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무안지역 민주당원 70여명은 22일 민주당이 4·25 무안·신안 보궐선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를 전략 공천한 데 반발, 민주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대표실에서 삭발식을 가진 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특정세력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김홍업씨의 전략공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호남민심의 최대 주주인 DJ의 눈치를 살피던 정치권도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민주당의 김홍업씨 전략공천에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서갑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 민주당 "DJ와 싸울수 있나" 시민단체 "대물림 구태 정치" 우리·한나라당도 비난 포문

씨의 결정은 특정정당의 높은 지지도에 기대 뺨치 한 번 달아보자는 것 외에 어떤 소신도 명분도 없는 행동"이라며 "민주당은 원칙 없는 입당추진과 전략공천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유기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김홍업씨 전략공천은 공당을 사당화하는 것은 물론 정당정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에 대한 전략공천을 옹호하는 민주당 현역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무책임한 발언도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전략공천은 세습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일본이나 미국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며느리, 사위, 10대, 3대, 5대, 이런 형태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으며 결국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종필 대변인은 김홍업씨 전략공천 배경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혈연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데 이어, 배기운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김 전 대통령과 싸울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내놓아 마치 민주당을 마치 DJ의 사당처럼 인식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결실연무안군민회·무안읍청년연합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공천이 (김씨) 자신과 가족, 나아가 지역 전체를 알마나 욕되게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민주당의 선택은 대물림 정치의 구태를 답습한 것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후보들은 후보 단일화를 통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나라 무안·신안 보선 후보 강성만씨

한나라당은 다음달 25일 치러지는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강성만(46) 전 농림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확정했다. 대전 서구에는 이재선(51) 전 의원을 공천했다.

강 후보는 서강대를 졸업하고 국정홍보처 공보지원담당관과 농림부 장관정책보좌관을 거쳐 현재 목포과학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10·25 신안군수 재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바 있다.

4·25 재·보선과 관련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오는 26일 공천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전남도의원(나주2) 후보와 기초의원(여수다, 순천 마) 후보를 확정하고 30일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2012 여수엑스포 유치 사이클 릴레이 홍보단이 22일 오후 무안군청 앞에서 2012년을 상징하는 2천12개의 오색풍선을 날리며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가는 곳마다 자전거동호회원 에스코트 '환영' 함평군 유치 소망 실은 나비 2,012마리 '훨훨'

### 2012 여수박람회 100만인 서명운동 적극 동참합니다

### 사이클 릴레이 홍보 나흘째

2012 여수박람회 유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시작된 '사이클 릴레이 홍보' 나흘째인 22일 오전 8시20분, 출근 차량으로 붐비는 나주대학교에 MTB(산악용 자전거)를 탄 '나주자전거동호회' 회원 20명이 모여 들었다. 울긋불긋한 헬멧과 선글라스를 끼고, 산뜻한 파란색 사이클 복을 갖춰 입은 이들은 나주대학교 한 켠 공간에 둘러서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할 '사이클 릴레이 홍보단'을 기다렸다.

이윽고 8시40분께 자전거 40여 대를 실은 트럭과 미니밴, 그리고 2012 여수엑스포 홍보문구로 뒤덮인 버스가 도착하자, 동호회원들은 버스에서 내리는 홍보단을 꺼안고 '만남의 기쁨'을 나눴다. 홍보단원과 약속을 하던 주부 동호회원 김윤희(36)씨는 "가족들에게 눈치가 보였지만 여수 박람회 유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오게 됐다"며 "여수가 제발 박람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이클 릴레이 홍보단장인 임응식 전남

자전거연합회장의 간단한 인사말이 끝난 뒤 동호회원과 홍보단원 등 40명은 경찰차를 앞세우고 나주시청으로 향했다. 사이클을 타고 화창한 공기를 가르며 달려가는 홍보단을 보고 어리둥절하던 출근차량 운전자들과 시민들은, 사이클에 매달려 나부끼는 '2012여수엑스포 홍보'깃발을 보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9시 정각, 홍보단과 동호회원들이 나주시청에 들어서자 신정훈 나주시장과 정찬명 나주경찰서장을 비롯 시민과 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이 도열해 일제히 손뼉을 치며 도착을 환영했다. 신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여수 박람회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200만 도민의 힘을 모아 박람회를 유치하자"고 말했다.

박람회 유치 구호제창에 이어 시민들의 지지서명을 받은 홍보단은 곧바로 두 번째 목적지인 무안군청으로 향했다. 경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무안자전거동호회원 20여 명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무안군청에 도착한 홍보단은 흥겨운 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손에 손에 풍선과 플래카드, 깃발을 든 300여 명의 군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여수박람회 유치가 절실하다"며 "박람회 유치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는 고대석 무안 부군

수의 환영사와 함께 2012박람회를 상징하는 2천12개의 오색풍선이 일제히 파란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박람회 순회홍보 및 서명부 전달식'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정재호(40·무안군 기획예산실 직원)씨는 "지금까지 여수 박람회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박람회가 '전남 발전의 기회'임을 알게 됐다"며 "여수박람회 유치가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길가 여거지기에서 깃발을 흔드는 무안군민 200여 명의 격려를 뒤로 한 홍보단은, 서해안고속도로 부근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한 뒤 이날 세 번째 방문지인 함평군청을 향해 페달을 밟았다.

함평군청 직원과 군민 200여 명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를 알리는 깃발과 플래카드를 흔들며 홍보단을 맞았으며, 이석형 함평 군수는 "이번 홍보단 활동으로 비롯된 22개 시·군의 박람회 유치 열기가 여수박람회 유치가 성공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두 줄로 늘어서 '박람회 유치 지지 서명부'에 서명을 했으며, 함평군은 2012박람회를 상징하는 2천12마리의 나비를 날리는 것으로 이날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홍행기자redplane@kwangju.co.kr

### 여수박람회 유치 서울시도 팔 걷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서울시도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다.

전남도·여수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40분 여수시청에서 서울시와 2012 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협정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박람회 전

남지사, 오현섭 여수시장과 박람회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유치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여수 박람회 유치를 위해 나설 경우 전국적인 불 조정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26일 여수시와 후원 협약 서울시민 대상 서명운동

후원 전남도와 여수시, 중앙 및 지방자치위원회는 오는 4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올림픽제조경기장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해 세계기네스 기록에 도전하는 모자이크 퍼즐 행사를 연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p><b>조이트레블</b> 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무안·신안 보선 후보 강성만씨</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 <p>www.joy-travel.net</p>